

부동산 경기 살아나니...가계빚 다시 '역대 최대'

3분기 주담대 17조원 ↑·가계신용 1875조...3개월 만에 14.3조 늘어 여행·여가 증가에 카드 미결제액도 2.6조원 경중...세 분기만에 반등 한은 "최근 금리 높아 부동산 관망세...향후 가계신용도 영향 받을 것"

가계빚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훈풍 속에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 카드 사용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계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14조원 넘게 불어나며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

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2분기 말(3월 말·1861조3000억원)보다 0.8%(14조3000억원) 많았다. 기존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871조100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올해 1분기(-14조4000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올해 2분기(+8조2000억원) 반등한 뒤 3분기에 다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가계대출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759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1747조4000억원)보다 1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2분기(1757조1000억원)를 뛰어넘어 역대 가장 많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49조1000억원)이 17조3000억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도 2분기(14조1000억원)보다 더 컸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10조원)은 5조5000억원 줄어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0조원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4조8000억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6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불었다. 3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6조6000억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2조8000억원) 위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3조3000억원)와 2분기(-5000억원) 연속 감소한 뒤 세 분기만의 반등이다. 여행·여가 수요가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 규모도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주택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판매신용도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 신용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2분기 11조7000억원에서 3분기 6조5000억원으로 급감한 데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금의 주택담보대출과 증권사 대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계신용 전망 관련 질문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는데, 향후 가계 신용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 효과도 시차를 두고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를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아파트 69.0% 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폐기 수준 밝을 듯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

을 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 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기업 전용 '비즈니스파트너론' 출시

운전·시설자금 업체당 최대 70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1일 광주·전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대출상품인 '비즈니스파트너론' (사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파트너론'은 광주은행이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광주·전남지역의 부동산 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내놓은 기업 대출 상품이다. 운전·시설자금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70억원이다. 광주은행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산출등급별 ▲담보비율별 ▲기업대출 신규 고객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갈아타기 등 조건에 따라 최대 연 1.7%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즈니스파트너론'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지역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광주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경단녀' 10명 중 4명 "육아 때문에 재취업 못해"

비취업 기혼여성 283만7000명...2명 중 1명 '경단녀' 30~40대 84.1%...자녀 많고 어릴수록 단절 비율 높아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결혼여성 2명 중 1명은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로, 이들 중 절반 가까이 '육아'를 이유로 재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94만3000명 중 비취업 여성은 283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일)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만8000명 감소했다.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라

는 계 통계청의 분석이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17.2%)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0%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56만700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35만3000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자녀교육 6만명(4.4%) 순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4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경력 단절 여성 중 3040 여성이 84.1%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26.3%)였다. 경력 단절 기간 별로는 10년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은 24.1%, 3~5년 미만은 13.2%였다. 육아나 출산 등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4명은 10년 넘게 재취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높았다. 자녀 수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3명 이상 29.4%, 2명 26.0%, 1명 23.1%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6세 이하 35.9%, 7~12세 21.9%, 13~17세 11.9%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 투싼, 더 대담하다...더 넓어졌다

3년만에 부분 변경 모델 공개 실내는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 넉넉한 공간·실용성·럭셔리



현대차의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투싼(사진)의 부분변경 모델이 공개됐다. 현대차는 21일 '더 뉴 투싼'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투싼은 2020년 9월 출시된 4세대 투싼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더 뉴 투싼은 기존 모델에 담긴 다부지고 와이드한 인상이 가미된 외장과 고급스러우면서 최첨단의 느낌을 주는 실내 등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외관은 전 모델보다 대체적으로 각지고 범퍼와 스키드플레이트가 가로로 넓어지면서 세련되면서도 단단한 느낌으로 전면부와 후면부의 통일감을 준 게 특징이다. 실내는 부분변경이 아닌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를 통해 수평적인 조형 중심의 설계로 넉넉한 공간감과 실용성, 럭셔리함을 더했다. 특히 각각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곡선 형태로 연결한 '파노라믹 커

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고, 물리 버튼·노브와 정전식 터치 방식이 균형 있게 조합된 인포테인먼트 공조 조작계를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에어벤트가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얇고 길게 연결됐고, 조수석 전방 대시보드에 오픈 트레이와 앰비언트 무드라프를 적용해 안락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 적용으로 공간의 여유를 줬고, 플로팅 콘솔을 구성해 수납성을 극대화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 뉴 투싼은 '파인 그린 매트'와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등 신규 색상 두 가지를 포함한 총 9종의 외장 색상과 그린, 블랙, 그레이를 새롭게 추가한 5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투싼은 기존의 만족도가 높았던 외장 디자인을 더 대담하고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내장 디자인은 사용 편의성과 고급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젊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대표 준중형 SUV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2025년형 '중형급 PBV' 아이디어 공모

12월 31일까지 라이프 스타일·비즈니스 2개 부문

기아는 21일 '제2회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PBV 아이디어 공모전'은 운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PBV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레이 EV'를 활용한 PBV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공모전에는 총 16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는 2025년 출시 예정인 중형급 PBV를 주제로, 참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라이프 스타일 부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 및 여가 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적합한 모빌리티 라이프를 위한 '중형급 PBV'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비즈니스 부문은 실제 차량을 활용한 사업 경험이나 산업 조사 경험, 차량 기반 비즈니스 리서치 경험 등을 토대로 중형급 PBV가 비즈니스에 긍정적·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제시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는 12월 31일까지 기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ia.com)를 통해 진행된다. 기아는 관련 부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창의성 ▲실행 가능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예선 및 본선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종료 후 2024년 2월 초 각 부문별로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각 500만원) ▲우수상 2팀(각 300만원) 등 총 8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PBV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종선)는 지난 20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화합과 통합의 상징적 장소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부산지역본부 자문단과 합동 개최했다. 영·호남 합동 국민연금 자문단 회의는 국민연금공단 김정화 연금이사 주재로 대학교수 등 지역 오피리언 리더와 20~30대 청년 자문위원들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전남 자문위원인 정은우(전남대)씨는 "국민연금 개혁은 어느 세대보다 저희 세대에겐 중요한 사안이다"며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을 알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서 올해

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종선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은 "우리 지역본부 및 관내 지사 직원들은 지역사회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0.42(+19.22)
↑ 코스닥	817.01(+3.93)
↓ 금리(국고채 3년)	3.640(-0.027)
↓ 환율(USD)	1289.20(-2.40)